국제 원자재값 상승에 비료 가격 급등…농민 울상

농협경제지주, 요소비료 1kg당 2만8900원…전년비 3.1배 뛰어
정부, 비료값 인상분 80% 지원…농식품부, 원예용 비료 지원 확대

장흥군 관산읍 송촌리에서 3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권영식(54·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부의장)씨는 다음달 중순 이후 5000평(1만6529㎡) 옥수수밭에 비료 줄 일이 막막하다.

최근 콩밭, 깨밭에 줄 비료를 샀는데 정부가 비료 가격 인상분을 보전해주기로 한 보조금 23만원 가량을 이미 넘겨버렸기 때문이다.

권씨는 "다음달 20일 이후 옥수수밭에 20kg짜리 비료 25포대 가량은 뿌려야 하고 고추밭 밑거름도 줘야하는데 3배 넘게 뛴 비료값 인상분을 고스란히 내야할 판"이라며 "겨울 가뭄은 계속되고 200평에 5만원하던 농기계 작업대행비도 올해 만원 넘게 오를 것으로 보여 삼중고에 놓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촉발한 요소 파동 이후 국제 원자재값 급등세가 그칠 줄 모르면서 영농철을 앞둔 광주·전남 농민들의 비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비료값 인상분의 80% 지원안을 내놓았지만 농민들은 보조금 한도가 소진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농정 당국은 이달 하순께 지원 품목에 원예용 비료를 포함시키기로 하며 '농심 달래기'에 나섰다.

10일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이달 현재 요소비료 1kg 가격은 2만8900원으로, 지난해 상반기(9250원)에 비해 3.1배(212.4%) 뛰었다.

농협은 비료 가격을 연초 정한 뒤 한 해 동안 운영하지만 지난해에는 요소 수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례적으로 가격을 한 번 더 인상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요소비료 1kg 값은 1만600원으로, 연초보다 14.6%(1350원) 올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022년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하기로 했다. 이로써 농업인은 지난해 8월 대비 가격 인상분의 20%를 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농업인별로 최근 3개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하 물량에 대해서만 가격보조를 적용하며 사실상 보조금에 한도를 뒀다.

농식품부가 보조금 한도를 둔 건 비료 사재기를 방지하고 무기질비료 사용량 증가로 인한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비료비 지원 방안은 물량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비료 종류와 구매처를 한정하면서 농민의 적잖은 반발을 샀다.

농민들이 시중 농약상에서 주로 구입하는 원예(과수)용 비료는 보조에서 제외됐고, 농협이 아닌 일반 대리점에서 구매한 비료도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지난 8일 '정부는 비료값 선별보조 중단하고, 인상분 전액 지원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비료 구입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다.

전농은 "지원하는 비료 종류를 제한하면서 고추·배추·양파 등 원예농가와 사과·배·복숭아 등 과수농가는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며 "비료의 종류에 따라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물량을 제한하고, 구매처에 따라 제외하고, 그나마도 전액이 아니라 80%까지만 보조하는 지원 대책이 농민들의 부담을 얼마나 경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월동이 끝난 보리와 밀 생육기를 맞았지만 폭등한 비료가격 때문에 농경 시기나 규모가 영향을 받게 된다면 농산물 생산량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농민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에 맞게 모든 종류, 모든 물량 인상분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며 농가별 비료보조금 한도 철회와 일반 대리점 등 농협 외 구매처 물량 지원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농식품부는 농민의 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하순부터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원예용 비료를 포함시키기로 하고 농협과 세부 추진사항을 논의 중이다.

농협과 비료 생산업체들은 일 년에 한 번만 정했던 비료 가격을 올해부터 분기별로 산정하면서 당분간 비료값을 둘러싼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달 7일 기준 지역농협별 비료(완제품) 재고량은 전남 2만6921t·광주 1782t 등 전국 13만1400t으로, 원활한 수급동향을 나타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얼어붙은 투자심리…광주·전남 주식 거래 석 달 연속 감소

고물가·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 불확실성 확대
전달보다 17.2% 감소…시총은 한달새 2조원대 증가

고물가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광주·전남 주식투자 거래대금이 석 달 연속 감소했다.

10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2월 광주·전남 주식거래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주식 거래대금은 6조825억원으로, 전달보다 17.2%(-1조2621억원) 감소했다.

광주·전남 주식 거래대금은 지난해 10월 8조3936억원에서 11월 10조7869억원으로 오른 이후 12월 8조6206억원, 올해 1월 7조3446억원, 2월 6조825억원으로 석 달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광주·전남 지역민 투자자들의 코스피 거래대금은 지난달 3조4200억원으로, 전달(3조8400억원)보다 10.9%(-4200억원) 감소했다. 코스닥 거래대금은 3조5000억원에서 2조6500억원으로, 24.3%(-8500억원) 줄었다.

광주·전남 상장기업 38개사의 시가총액은 한 달 새 2조원 넘게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 광주·전남 상장법인들의 시가총액은 23조1263억원으로, 전달(21조873억원)에 비해 9.7%(2조390억원) 늘었다.

코스피 17개 종목 시총은 18조5883억원에서 20조5544억원으로, 10.6%(1조9661억원) 증가했다. 코스닥 상장사들은 2조4990억원에서 2조5719억원으로, 2.9%(729억원) 늘었다.

코스피에서는 광주신세계 시총이 14.4%(376억원) 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전KPS 14.0%(2047억원), 한국전력 12.6%(1조669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다이나믹디자인(-45.3%), 금호건설우(-4.2%), 대유플러스(-4.2%) 등은 시총이 전달보다 줄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한그린파워(48.2%·651억원↑), 위니아딤채(11.9%·156억원↑), 서산(11.6%·53억원↑) 등 시총이 증가했다. 애니젠(-9.3%), KPX생명과학(-8.5%), 대신정보통신(-7.5%) 등은 감소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지난달 초 국내외 기업실적 호조 등으로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4일 최저점을 형성했다"며 "이후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 마감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스피, 기관 매수에 2.21% 상승…유가 하락에 나흘만에 반등

'윤석열 정책 수혜주' 플랫폼·건설 종목 급등

국제유가 폭등세 진정에 코스피도 10일 2% 넘게 상승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7.92포인트(2.21%) 오른 2680.32에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38.46포인트(1.47%) 오른 2660.86에서 출발해 2% 안팎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선물·옵션 만기일인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7653억원을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지난 사흘간 연속 매도 우위를 유지한 기관은 나흘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했다.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4271억원, 3534억원을 순매도했다.

배럴당 130달러대로 폭등했던 국제유가가 산유국의 증산 기대에 전날 110달러 아래로 10% 이상 하락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기대가 커지며 위험자산 선호가 되살아났다.

위험 선호 회복에 원·달러 환율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전날 1230원대로 치솟은 원·달러 환율도 이날 9.0원 내린 1228.0원에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권에서 '대장주' 삼성전자는 1.73% 오른 7만700원에 마감하며 6만원대로 내려간지 하루 만에 다시 7만원대를 탈환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 출범 후 플랫폼 규제 해소 기대에 힘입어 네이버(8.70%)와 카카오(7.71%)가 급등했다. 차기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기대에 건설주도 수혜주로 주목받으며 삼성물산(6.48%), 현대건설(8.94%), GS건설(8.18%)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8.94포인트(2.18%) 높은 889.08로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기관이 2713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552억원, 55억원을 순매도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80.32(+57.92)
↑	코스닥	889.08(+18.94)
↓	금리 (국고채 3년)	2.267(-0.020)
↓	환율 (USD)	1228.30(-8.70)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과 지역민에 힘을

광주은행-전남신보 특별출연 협약…120억원 대출 보증

송종욱(오른쪽) 광주은행장이 전남도민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10억원을 전남신보에 출연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 최근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위한 10억원을 특별출연했다고 10일 밝혔다.

송종은 광주은행장과 정양수 전남신보 이사장은 최근 순천시 해룡면 전남신보 본점에서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남신보는 광주은행의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총 120억원을 특별보증한다. 지원금은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 대출금리는 최대 0.5%포인트 감면해준다.

광주은행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전남신보에 총 47억원을 특별출연했다. 은행 자체 자금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지원은 지난달 말 기준 2만8216건, 1조2754억원에 이르렀다.

송종욱 은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해 함께 상생발전을 이루며 전남·광주 대표은행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달걀 한 판 5104원

이마트 16일까지 27개 상품

이마트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달걀(대란 30개) 한 판을 5000원대에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할인 대상 품목은 일반란, 등급란, 동물복지란, 브랜드란, 가공란, 희귀란 등 27개 상품이다.

할인을 받으려면 신세계포인트 회원을 인증하면 된다.

대란 30개 한 판은 20% 할인된 5104원에 구매할 수 있다. 1등급란(대란 25개)과 동물복지 유정란(대란 25구)은 각 30% 할인된 5586원, 7560원에 내놓는다.

푸른빛을 띄는 청란(10구)과 오골계란도 포인트 적립 때 각 20% 할인된 5584원에 구매할 수 있다.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에 따라 산란계 사육수가 대폭 감소하며 높아진 계란 가격은 여전히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이마트는 '물가 안정'을 취지로 브랜드 한우는 40%, 딸기 모든 품목은 20% 할인된 가격(회원 대상)에 선보인다. 제철 맞은 대저토마토(1kg)는 포인트 적립 때 5000원 할인해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KDN, 나주시 보건소에 항원검사 1만5000개 기부

나주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전KDN은 10일 나주시 보건소에 지역민을 위한 신속항원검사 꾸러미 1만5000개를 기부했다. 〈한전KDN 제공〉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한은 경제 마스터즈' 선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광주·전남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2022 한은 경제 마스터즈'를 선발·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한은은 광주·전남 대학생에게 다양한 경험과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대상은 대학 졸업 때까지 2학기 이상 남은 이 지역 대학 재학생이나 휴학생으로 30명 안팎이다.

선발된 마스터즈는 금융경제 독서 활동, 본부 간행물이나 조사연구 자료 등에 대한 리포트 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통화정책 방향 기자간담회, 지역경제포럼 등을 시청하고 지역경제와 관련한 기후변화, 디지털 화폐 등과의 관련성 등을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마스터즈 이수자에게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명의의 이수증, 기념품 등을 준다. 신청 서류는 오는 4월1일까지 전자우편(gwangju@bok.or.kr)으로 내면 된다. 문의 한은 광주전남본부 기획금융팀 062-601-1110.

/백희준 기자 bhj@

양파 가격 5월까지는 평년보다 낮아…6월부터 오를 것

저장양파 소진이 늦어지면서 양파 가격이 5월까지는 평년보다 낮을 전망이다.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2년산 양파 생산 및 가격 전망' 자료를 발표하며 "조생종(더 일찍 성숙하는 종) 출하기인 3~5월 가격은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조생종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양파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다. 지난달 양파 상품의 도매가격은 1kg당 449원으로 평년(1166원)보다 약 61.5% 떨어졌다.

연구원은 올해산 조생종 양파 생산량은 작년보다 0.2% 증가해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만생종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1.3%, 14.9%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따라 중만생종 양파 출하기인 6월 이후의 가격은 3~5월보다 높은 900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원은 정부 수급대책이 시행될 경우 3~5월 양파 가격은 2월보다는 높은 650원 내외일 것으로 내다봤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